

#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언약의 땅대를 세운 70인 제자 여호수아 -복음으로 여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1:5-8, 히브리서 8:8-10

정윤돈 목사님

\* 수1:5-8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 히8:8-10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여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자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외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겠다. 우리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북미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선교의 열매를 증명해주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더러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선교적 전통을 위해 한국 교회는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날짜를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 추수감사절 날짜는 여러 번 변화했다. 1789년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1864년 링컨이 11월 넷째 주간으로, 1941년에 미국 의회는 지금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 그 의미와 본질은 잘 모르고 왜곡되어 있지만 문화화 되어 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박해 때문이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 그들은 1620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했다. 63일간의 밀고도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와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메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부족,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한 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1620년 그해 겨울 2-3개월 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1-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엄동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성수, 십일조, 경건생활을 했다. 사실 청교도들은 소수였다.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보시고 기쁘고 기뻐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신다. 일본 사람들은 한번 결단하면 얼마나 성실한지 모른다. 한번 복음 전했는데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일당백이다. 일본은 이상승배도 많이 하는데 왜 잘 살까? 소수의 사람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게, 예전에는 강단에서 항상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었다. 나라에 대한 마음이 항상 용솨음쳤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배부르다. 갈 데도 많고 타락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안 한다. 복음가진 의인 한 명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보고 축복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 짊어질 곳에는 한 사람이 불을 켜면 다 혜택을 받는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 혜택을 받는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되시기 바란다. 이렇듯 그들의 기도 속에서 성장한 교회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도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문제 일으킨 선교사님은 아무도 없다. 가장 순수하고 좋은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주셨다. 그걸 다 배워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미션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 있다. 대한민국은 못 가는 나라가 없다.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다. 한류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렇게 만드셨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시 파송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언약의 땅을 얻은 것처럼 청교도들은 약속에 땅인 미국을 얻게 되었다. 102명 중에 50명이 죽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그들은 감사했다. 감사를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는다. 감사만이 흑암을 이길 수 있다. 큰 것만 감사하면 감사가 아니다.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라도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감사의 조건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후대와 교회를 사용하신다. 지금처럼 편한 시대가 없다. 이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지시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을 발견하고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많은 언약의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의 땅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 1.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예수”와 같은 단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 좋은 교육방법은 엄마, 아빠가 교육을 포기하고 주께 맡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속 램넛트들이 다 부모를 떠나게 하셨다. 부모님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 여러 문제와 위험이 있지만 끝까지 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다. 주께 맡겨야 한다. 유대인들은 장애인교육이 잘 되어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

아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삼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라합과 같은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는 라합과 같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사업을 할 때나 전도캠프를 할 때도 그리고 선교현장에도 이와 같이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인이라고도 한다. '귀인'이라는 책을 봤더니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귀인 같은 만남이 있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남으로 응답을 받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세 번째로 나의 가나안과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원니스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지역, 한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함께 하였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21장까지는 모두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다. 함께 정복하고 함께 분배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되는 게 함께하는 부분이다. 항상 갈라진다. 항상 동업을 못한다. 다들 각자 능력은 뛰어나다. 혼자서는 잘 하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과는 항상 싸운다. 우리는 원니스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생활을 했고,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고 다음으로는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복하였다.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현장을 한 분야씩 정복해야 하겠다. 즉, 2030년부터 2080년 시대를 미리 준비시켜야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 후대를 3단계로 살리고 능가할 수 있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램프트선교사로 준비시켜야 하겠다. 우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가 된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4) 네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간과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한 사람도, 그리고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야 한다. 소중한 사역에는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땅대를 박살내고,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땅대를 세우시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언약의 땅과 행복과 축복을 회복하고 정복하는 방법이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조금만 순종한다면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붙드신다. 재수 없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장로님 자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계획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신 것이다. 이걸 알아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은 알아야 하겠다.

(1)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보겠다.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②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③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④ 강하고 담대하라 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중 ⑥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⑦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⑧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⑨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⑩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10가지 언약과 축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다. 많이 지킬 필요도 없다. 조금만 언약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은 당장 응답을 주실 것이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2)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하고 말씀하고 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장소이다. 이 도피성은 죄인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도피성은 우리를 치유하고 힐링해 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할 때 잘못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없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그럴 때 복음 안으로, 도피성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으로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3) 세 번째로 이방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말씀이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열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상징적인 건데, 세상적인 게 처음에는 좋고 사랑스럽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시킨다는 말이다. 작은 것 하나만 선택을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 작은 불신앙 한 번 하는데 인생이 고통스럽다. 작은 실수를 하는데 인생이 10년씩 날아간다.

(4) 네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신들은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신앙이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된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지만 상관없다.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는 고백이면 하나님은 모든 악도 선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다.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성공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대통령 되는 게 성공이 아니다. 예배하고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 성공할수록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노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① 영력이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길이다.

② 지력이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③ 체력이다.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의 체력을 받아야겠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한다.

④ 경제력이다.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하였고 이삭은 한해에 백배의 추수를 하였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는다. 응답받고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 세계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쓸 것도 많고 선교사님 도울 일도 많다. 소중한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 축복받고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세계복음화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보이는데 아무 것도 못 도와주고 돌아오면 사실 짐만 된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응답을 받아야 237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⑤ 마지막으로 인력이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세계복음화를 했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산업인이었고 전문인이었고 전도자였다. 여러분들과 후대들이 이러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과 우리 가문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여호수아서를 통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청교도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얻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